

2020 국별 진출전략

알제리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 장기화	4
나. 2020년 재정법 제정	4
다. 무역수지 개선 및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 지속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가. 정치 환경	7
나. 경제 환경	10
다. 산업 환경	12
라. 정책·규제 환경	15
2. 시장 분석	17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7
나. 교역	17
다. 투자진출	20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2
가. 교역	22
나. 투자	2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4
III. 진출전략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6
3. 한-알제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9
4. 진출 시 유의사항	32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3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4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5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6
부 록	
對알제리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37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정치 사회적 갈등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하락)

- 금년 2월 촉발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며 알제리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
 -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위축,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 증가로 외환보유고 급감
- 신정부 수립 이후에도 국가 경제의 높은 원유 수출 의존도, 재정 부담이 큰 보조금 제도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단기적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37.5	39.1	39.9	40.6	41.4	42.2	43.1	43.9
명목 GDP	십억 달러	209.0	213.9	166.3	160.1	167.6	180.5	175.2	172.0
1인당 명목GDP	달러	5,564	5,469	4,171	3,949	4,048	4,274	4,047	3,922
실질성장률	%	3.4	3.8	3.8	3.3	1.6	2.1	1.7	1.4
실업률	%	11.0	10.2	11.0	10.2	11.1	11.6	11.4	11.5
소비자물가상승률	%	8.9	2.9	4.8	6.4	5.6	5.5	4.3	2.3
재정수지(GDP대비)	%	-4.4	-7.7	-15.6	-12.5	-6.5	-4.9	-5.5	-4.7
총수출	백만 달러	71,866	60,061	34,668	30,015	35,191	-	-	-
(對韓 수출)	"	358	563	778	235	892	-	-	-
총수입	"	50,376	58,580	51,702	47,089	46,059	-	-	-
(對韓 수입)	"	1,291	1,626	1,171	1,092	1,690	-	-	-
무역수지	억 달러	235	15	-170	-171	-109	-	-	-
경상수지	"	155	-93	-274	-262	-221	-135	-153	-112
환율(연평균)	현지국/US\$	77.54	87.95	107.13	110.53	114.93	118.35	123.02	127.04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5.0	15.1	-5.8	16.4	12.3	15.1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IHS Connect Algeria Country Report, Global Trade Atlas,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9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 장기화
- 2020년 재정법 제정을 통한 경제 개혁 추진 노력
- 무역수지 적자 감소 및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 지속 전망

가.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 장기화

7개월에 가까운 갈등 끝에 대통령 선거 일정 발표

- 벤살라 임시 대통령, 2019년 9월 1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선 일정 발표
 - 대통령 선거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민주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하며 헌법에 의거한 임시대통령의 권한에 입각하여 차기 대선 일정을 12월 12일로 발표
 -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독립선거기구(Autorité Nationale Indépendante des élections)가 출범, 선거인단 소집에서 선거 결과 발표까지 관리 예정

기로에 선 알제리 정국, 상황변화 추이에 주목 필요

- ‘System’으로 통칭되는 舊 체제의 완전한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
 - 당초 4월 18일 추진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가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의 5선 출마 선언으로 야권 및 국민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정치 사회적 혼란을 초래
 - 계속되는 국민의 시위로 결국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선거가 무산되며 임시 정부가 구성되어 7월 4일 대선을 추진했으나, 국민의 반대로 7월 4일 대선마저 무산
 - 2월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는 라마단 기간, 여름 휴가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으며, 12월 대선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 참가자 규모 증가세
 - * 2월 22일(금) 최초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후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시위, 9월 27일 기준 32주차 시위 진행
- ‘System Out’을 외치는 국민의 희망 사항과 빠른 시일 내에 정국을 안정시켜 이를 통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시급한 정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바, 향후 상황 변화 추이에 주목 필요

나. 2020년 재정법 제정

2020년 재정법 초안(Avant-Projet de Loi de Finance 2020) 제출

- 2019년 9월 11일 정부회의에서 모하메드 루칼 재무장관이 2020년 재정법 초안 제출

- 정부 운영예산 및 투자예산 등 감소로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9.2% 감소
- 일반 세수 5.3%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8.3% 감소
- 초안 세부 내용은 정부회의에서 1차 합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되고, 의회 승인을 거쳐 연내 공포되어야 하는 일정이나 금년의 경우 추진 일정이 미확정
- 정부회의에 제출된 초안을 기준,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정 철폐 및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외 파이낸싱 도입 등 그 동안 알제리 정부가 강경하게 반대해 온 개혁적 조치가 포함됨
 -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알제리 경제 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정책 목표로 하여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알제리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외국인투자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규정 철폐
 - * 2008년 재정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는 규정 도입. 2016년 투자촉진법 제정 시 지분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나 국부 유출 우려 등 반대 여론의 논리에 밀려 2016년 수정 재정법으로 지분 제한 규정 부활
 - 또한, 최근까지 그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던 대외 파이낸싱에 대해, 수익성이 보장된 핵심 유망 프로젝트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
 - 그 밖에도 중고 승용차 수입 허가, 부유세 도입, 해외등록차량통행세 신설, 담배세 및 자동차세 인상 내용 포함
- 현재까지 공개된 2020년 재정법은 현재까지는 초안 단계로 정부회의, 의회 승인 단계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주요 사항 변동 가능성 배제 불가

다. 무역수지 개선 및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 지속

임시수입관세(DAPS) 도입

- 2019년 1월 알제리 정부는 201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품목별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도입
 - 총 111개 카테고리 총 992개 품목에 대해 30~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
 - 당초 2018년 7월경 도입을 목표로 2018년 초부터 도입을 준비했었으나, 부처 간 협의체와 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2019년 1월부터 시행
- 2020년에도 임시수입관세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품목 및 세율에 대해서는 현지 수요 및 현지 산업 발달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전망
 - 2019년에도 라마단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농·식품 품목에 대해 부과대상에서 제외 및 세율 조정을 한 바 있음



알제리 산업부, 자동차 생산용 CKD/SKD 조립 kit 수입제한

- 알제리 정부는 2019년 5월, 급감하는 외환보유고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외환보유고 고갈의 원인으로 무역적자를 지목하고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 발표
 - 2014년 2천억 달러를 상회했던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며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월 798억 달러를 기록
 -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근 자동차 현지 조립 생산 활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SKD/CKD 조립 Kit 수입 규모를 연간 20억 달러로 제한하고 생산 업체별로 쿼터 배정
- 2020년에도 외환보유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동차산업 관련 시행되었던 수입제한 조치가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 시행될 가능성 배제 불가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장기화된 정치사회 갈등으로 불안한 정치 환경 진출 확대에 악재
- 저유가 기조로 악화된 경기, 대내외적 상황 악화로 침체 지속 전망
-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되는 현지협업 수요, 정치 사회적 갈등이 변수
- 관세를 기반으로 한 수입규제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 환경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한 복수 정당 양원제 체제

- 1996년 11월 개헌으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수립
 -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군 통수권, 총리 및 각료 임명, 대통령령 제정, 긴급명령권, 하원해산권 등의 권한 행사
 - － 외형상으로는 행정부, 양원제 입법부 및 독립적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지향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대통령의 대권(Magistrature Suprême)을 명시하여 3권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강조
-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며, 1989년 헌법 개정으로 유일정당 제도가 폐지되고 복수정당제도 도입
 - － 국가인민의회(APN : Assemblée Populaire Nationale)로 일컬어지는 하원은 총 462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하에 직접선거로 의원 선출하여 입법권, 정부감독권 및 대정부 질의권, 조약·협정 비준 동의권, 내각 해산권, 외교정책 심의·결의권 등의 권한 보유
 - － 국가평의회(Conseil de la Nation)로 일컬어지는 상원은 하원 의원 정족수의 1/2인 총 144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의 1/3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3는 48개 주에서 각각 2명이 간선되며, 하원과 대동소이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하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상원에서 3/4 찬성으로 확정

정당별 성향 및 상·하원 의석 분포

정당명	성향	의석수	
		하원	상원
민족해방전선 (FLN : Front de Libération Nationale)	국민주의 사회주의	165	47
민주 국민회의 (RND : Rassemblement National Démocratique)	국민주의 민주주의	101	44
사회평화 운동 (MSP : Mouvement de la Société pour la Paix)	이슬람주의	34	-
알제리희망회의 (TAJ : Tadjamoua Amel El Djazair)	국민주의	19	-
이슬람연맹 (Alliance Nahda-Adala-Bina)	중도 이슬람주의	15	-
미래전선 (FM : Front El Moustakbal)	국민주의	14	-
사회주의전선(FFS : Front des Forces Socialistes)	민족사회주의 세속주의 베르베리즘	14	4
알제리대중운동 (MPA : Mouvement Populaire Algérien)	사회민주주의 세속주의	13	-
노동당 (PT : Parti des Travailleurs)	좌익 반자본주의	11	-
문화민주주의회의 (RCD : Rassemblement pour la Culture et la Démocratie)	사회민주주의 세속주의 베르베리즘	9	-
기타 정당	-	38	-
무소속	-	29	-
대통령 지명	-	-	44
공석	-	-	5
총의석수		462	144

자료 : 외교부 2018년 알제리 개황 자료, 알제리 관영통신 APS

- 1999년 부테플리카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화합정책 추진으로 정치 안정세
 - 대통령 직선제 시행, 복수정당제 운영 등 정치적 민주주의 안정적으로 정착
 - 2011년 아랍의 봄 시기에도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국민의 안정 지향적 성향으로 큰 소요사태 없이 지나감

대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며 국가 경제에 악영향

- 2012년 2월, 20년 가까이 집권한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이 노령과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5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 발발
 - 2013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대외적으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4선 재임을 유지한 대통령이 병상에서 대리인을 통해 5선 출마를 선언하자 국민이 크게 반발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 발발

- * 2월 20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도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적으로 진행
- *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위대, 군경 측 모두 1990년대 정부와 이슬람 세력 충돌로 발발한 내전을 겪었던 암흑의 10년을 의식해 충돌을 최소화하며 평화 유지 노력
-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4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선 연기를 추진했으나, 야권 및 국민의 큰 반발로 결국 사임
 - － 헌법 규정에 따라 벤살라 상임위원장이 임시 대통령직에 취임, 임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 운영 추진
- 여야 양측이 뚜렷한 차기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위 세력과 집권 세력 간의 갈등 장기화
 - － 적합한 대통령 후보가 물색되지 않은 상황에서 7월 4일로 추진되었던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강력한 반발에 막혀 무산
 - － 시위 세력 측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차기 대선 방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집권 세력에서는 기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선을 강행하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
- 시위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 측근 및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비리, 부패 수사 진행
 - － 우야히아 前 총리를 비롯한 전 정권 핵심 정치인 및 주요 기업인이 조사 대상이 되어 해임, 출국 금지, 체포, 구금 등의 조치
 - － 알제리 주요 유력기업 관계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며 원활한 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며 알제리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 연루된 기업들의 법인 계좌가 동결되며 수입수출 외환 관련 업무뿐 아니라 종업원 급여 수 개월간 지급 불가로 인한 노동자 파업 및 시위 등 사회적 갈등 증폭
- 가이드 살라 합참의장의 강력한 요청 및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벤살라 임시대통령, 연내 대선 일정 발표
 - － 12월 12일 목요일로 발표된 대선 일정에 맞춰 임시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선거 일정 전반을 전담할 선거관리 독립기구 출범
 - － 야권 및 시위대 측에서는 현 정권하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무의미하다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알제리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전환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선 거부
- 현 정권의 전면 퇴진을 주장하는 야권 및 시위대와 빠른 시일 내에 정국을 안정시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시급한 정부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여 갈등 장기화 우려
 - － 대선 일정 발표 이후 시위대의 결집력과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려한 군과 경찰의 진압 또한 강화되는 추세
 - * 타 지역 시위대가 알제시 금요일 시위 합류를 위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알제 진입 도로를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강화

- 현재로서는 시위대와 군경 측 모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폭력 시위 및 무력 진압 상황 완전 배제 불가

나. 경제 환경

경제지표 동향

- 2014년부터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 경제 전반적으로 악화
 - 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53달러 수준으로 하락한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은 2.2%로 떨어지고 GDP 1,701억 달러로 감소
 - 2018년 유가가 배럴당 평균 69달러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이외의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침체로 경제성장률 1.5%로 악화
- 대외적 여건 악화에 정치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며 침체 지속 전망
 -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 심화로 2019년 1월 외환보유고가 알제리 역사상 최초로 800억 달러 이하로 감소
 - 2019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대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며 경제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어 저성장 지속 전망

알제리 대외교역 동향

알제리 무역수지 동향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전망)
경상수지(억 달러)	-274	-262	-221	-135	-153
상품수출(억 달러)	346	293	346	436	460
상품수입(억 달러)	526	493	488	484	524
서비스수지(억 달러)	-75	-74	-83	-79	-94
외환보유고(억 달러)	1,447	1,144	898	778	661
대외채무(백만 달러) *External debt stocks	4,671	5,463	5,707	5,710	-

자료 : World bank data base, IHS Markit Algeria Economic Outlook 2019

- 2018년 상반기 기준, 알제리의 대외 교역량은 426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5.60% 증가
 - 이탈리아가 전체 교역규모 48.9억 달러, 11.48%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고 그 뒤를 프랑스, 스페인이 차지
 - 중국은 전년 동기 대비 16.47% 교역량이 감소한 반면, 스페인은 같은 기간 20%가량 교역량이 증가하며 중국을 제치고 3대 교역 상대국으로 급부상

- 한국은 알제리의 13대 교역 상대국으로 교역규모는 10.8억 달러, 전체 알제리 대외 교역에서 2.54%의 비중 차지

알제리 대외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비중	증감*
전체	77,105	81,250	42,611	100.00	5.60
이탈리아	9,858	9,384	4,892	11.48	3.38
프랑스	8,199	8,728	4,507	10.58	13.34
스페인	7,451	7,236	4,273	10.03	20.02
중국	8,742	9,009	3,961	9.30	-16.47
미국	6,163	5,285	2,805	6.58	11.81
터키	3,280	3,845	2,194	5.15	14.83
독일	3,091	3,241	1,604	3.76	1.81
영국	1,825	2,190	1,601	3.76	57.89
브라질	2,827	3,502	1,535	.360	-18.20
인도	1,420	1,855	1,335	3.13	34.55
한국	1,326	2,582	1,084	2.54	-8.82

*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9월 기준 확보가능 최신 자료)

알제리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산업별 알제리 외국인 투자 현황(2002~2016년)

분야	프로젝트(건)	비중(%)	총액 (백만DA)	비중(%)	고용(명)	비중(%)
농업	13	1.44	5,768	0.23	641	0.48
BTPH	142	15.76	82,593	3.28	23,928	17.91
제조업	558	61.93	2,050,277	81.37	81,413	60.95
보건의료	6	0.67	13,572	0.54	2,196	1.64
수송	26	2.89	18,966	0.75	2,407	1.80
관광	19	2.11	128,234	5.09	7,656	5.73
서비스	136	15.09	130,980	5.20	13,842	10.36
정보통신	1	0.11	89,441	3.55	1,500	1.12
합계	901	100	2,519,831	100	133,583	100

주 : 1달러=120.15DA(2019년 9월 환율)

자료 : 알제리 투자청(ANDI)(2019년 9월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

◦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발

- 제조업이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95%로 절대적 비중 차지
- 수입규제 및 현지 제조 장려정책으로 동 기간 자동차산업 및 제약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현지 투자를 활발하게 한 결과로 분석됨

다. 산업 환경

풍부한 천연자원, 빈약한 산업 기반

- 원유 매장량 세계 15위, 세일가스 매장량 3위의 천연자원 부국
 - 원유 수출이 전체 국가 수출의 93.5%를 차지하며 경제성장 견인
-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4%에 불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 원유 수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 운용실적이 유동적

국제 유가변동에 따른 알제리 경제지표

(단위 : 달러/bbl, 억 달러, %)

구분	연평균 국제유가	경상수지	경제성장률
2012	105	+235	3.4
2017	53	-259	2.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EIU Country Report, IHS Markit

- 알제리 정부, 원유 수출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정책 전개
 - 이를 위해 투자처로서 알제리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국 내 기업투자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추진
 - 빈약한 제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
 - 주요 성장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들을 집중 육성하여 내수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관련 분야 수입을 줄이고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 추진하여 무역 수지 균형 추진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국내 제조업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의 정치 사회적 갈등이 알제리 내 제조업 시장 확대에 큰 변수로 작용
 - 2019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대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이 단기간 내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기업 활동이 침체되는 양상을 보이며 장기화 전망

자동차 산업 분야

-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분야 외국 기업 투자증가
 - 2015년부터 완성차 수입 관련, 수입허가제도 및 쿼터제 운영으로 수입급감
 - 2014년 르노가 현지 조립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생산을 추진한 이래 현대, 기아, 폭스바겐, 닛산, 푸조도 현지 생산 추진
 - * 현지 기술 수준으로는 하청 생산이 쉽지 않아 현재는 조립 키트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수준
- 현지 진출한 완성차 생산업체들의 경우 정부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라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 계약에 따라 3년 내 현지화 비율 15%, 5년 내 40% 달성 필수
 - 알제리 현지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품질기준에 맞는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하청 업체 기반이 거의 없는 상황
 - 품질 기준에 맞는 완성차 생산을 위해서는 완성차 협력업체의 현지 진출이 필수적
-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CKD/SKD 부품 Kit 수입 제한
 - 알제리 정부는 2019년 5월, 무역적자 확대로 외환보유가 급격히 감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 자동차 조립 생산을 위한 부품 Kit의 수입을 제한하기로 결정
 - 이는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지 자동차 제조 기반 발달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부품 현지화 속도가 기대보다 저조, 결국 필요한 조립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
 - 알제리 정부가 현지 생산 촉진 정책을 전개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업계의 혼란을 초래
 - 다만, 이러한 조치는 외환보유고 급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것으로 분석이 되며, 신정부 수립과 함께 보다 장기적 비전을 갖춘 자동차산업 육성 정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

전자제품 시장

- 알제리 가전 시장, 연간 생산량 500만 대 규모의 성장 시장

알제리 가전제품 제조 산업 주요 현황

가전제품 제조업체 수	933개(공기업, 민간기업 합계)
가전제품 SKD/CKD 조립생산 업체 수	93개
생산량	2017년 기준 연간 5백만 대 생산
주요 제품	TV(140만 대/연), 냉장고(1백만 대/연)
수출	2018년 기준 1억 달러 규모

자료 : 일간지 El Watan, Liberté, 알제리 관영통신 APS, 알제 무역관 조사 자료 종합

- 가격경쟁력 위주의 국산 제품과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고급 수입제품 시장이 명확하게 양분되는 특징
 - 알제리 가전제품 제조업은 정부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
 - 초기에는 공기업 중심으로 품질보다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으며, 90년대 경제 개방 정책 이후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이 알제리 시장에 진출하며 현재는 적당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단계까지 성장
- 알제리 정부, 정책적으로 가전제품 생산 현지화 노력
 - 가격경쟁력이 높은 알제리산 가전제품의 수출 잠재력을 고려,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는 가전제품 제조업의 현지화 추진
 - 수입 쿼터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현지에서 생산 중이거나 생산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수입쿼터를 배정하고, 2018년 수입금지 조치 시행 시에도 현지에서 생산 중인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하여 현지 생산 제품을 보호
 - 2019년 초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제도 시행 시에도 알제리 내에서 생산되는 가전제품 품목에 대해서 60%의 임시추가수입관세를 부과하며 현지 생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농식품 시장

- 알제리의 농식품 산업은 전체 GDP의 10% 비중, 고용 규모 14만 명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
 - 알제리 제2의 핵심 산업으로, 석유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부가가치의 약 40% 차지
 -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 산업 관련 기업은 약 1만7천 개로 고용 규모는 약 14만 명 규모로 추산
 - 농식품 기업의 약 95%가 민간 기업으로 알제리 핵심 산업 중 공공분야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
- 세부 분야별로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농식품 기업들은 소수의 규모가 큰 기업과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
 -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 기술 수준도 국제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등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가내 수공업 수준인 업체 수도 상당하여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한 특징
 -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되는 시장 특성상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낮고 요구사항 또한 까다롭지 않아 기업들이 기술혁신 등을 통한 역량 강화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보다는 낮은 가격에 내수시장 공급을 선호하는 기업도 다수
- 알제리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무역 수지 균형을 찾기 위해 농식품 산업을 주요 핵심 산업으로 선정, 농식품 기업 해외진출 및 글로벌 농식품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경주

- 농식품 산업 발전 국가계획(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Industries Agroalimentaires) 수립, 2025년까지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한 국내총생산의 60% 까지 끌어올리는 목표 설정
- 이를 위해 500개의 주요 농식품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4개의 기술혁신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
- 또한, 세부 산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의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집적시켜 산업역량을 강화시켜 농식품 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추진

라. 정책·규제 환경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현황

- 알제리, WTO 미가입 상태
 - 1987년부터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온 바 있으나, 2019년 9월 말 현재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
 - 알제리 측에서 WTO 가입조건인 원유가격 국제시장가 적용 조항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 없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입협상에 난항
 - * 알제리 정부, 국내에 원유, 가스를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 증으로 이는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유인 요건의 큰 비중을 차지
 - * WTO는 이를 일종의 불법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거래로 간주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이가 상당한 관계로 당분간 알제리의 WTO 가입은 요원한 것으로 분석
- EU-알제리 FTA
 - 2005년 9월 발효된 점진적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협상 진행 중
 - 당초 2017년까지 완전 자유무역지대화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알제리 측의 요청으로 2020년까지 협상시한이 3년 연장된 바 있음

EU-알제리 FTA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

1단계 리스트 (협약 발효 직후 유효)	2단계 리스트 (협약 발효 2년 후 5년에 걸쳐 적용)	3단계 리스트 (12년간 점진적 철폐)
중간재 원자재 화학공업용 반제품 금속공학 섬유 건축재료	의약품 기계장치 전기 및 전자설비(가전제품 제외) 철도운송설비 자동차 수리 부품 제어, 측정 설비 기구	소비재 재고품

- GAFTA(Greater Arab Free Trade Area : 범 아랍 자유무역지대)
 - 1982년 2월 튀니지에서 협상 체결, 2009년 1월 1일부터 발효
 -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 튀니지, 예멘, 모로코, 수단, 모리타니, 팔레스타인, UAE,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카타르, 레바논, 리비아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을 갖춘 경우 관세 면제

무역수지 개선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입규제정책 강화

- 2019년 1월 임시추가수입관세(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 DAPS) 제도 도입
 - 2018년 한 해 동안 유지되었던 품목별 수입금지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임시추가수입관세 제도 도입
 - 총 111개 카테고리 총 992개 품목에 대해 30~2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
 - 해당 카테고리의 50% 이상이 농식품 품목으로 이는 알제리 정부의 농식품 산업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
- 알제리 정부, 2019년 5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 조립 생산에 필요한 SKD/CKD 조립 Kit 수입제한 조치 시행
 - 2014년 2천억 달러를 상회했던 알제리의 외환보유고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적자 누적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며 누적된 무역적자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월 798억 달러를 기록
 -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최근 자동차 현지 조립 생산 활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SKD/CKD 조립 Kit 수입 규모를 연간 20억 달러로 제한하고 생산 업체별로 쿼터 배정

2020년 재정법 재정으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

- 2019년 9월 11일 정부회의에서 모하메드 루칼 재무장관이 2020년 재정법 초안 제출
 - 정부회의에 제출된 초안 기준,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규정 철폐 및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외 파이낸싱 도입 등 그동안 알제리 정부가 강경하게 반대해 온 개혁적 조치가 포함
 - 향후 법제정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이 최종법안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2 시장 분석

-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풍부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 빈약한 산업 기반, 원유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되는 현지협업 수요, 정치 사회적 갈등이 변수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 국토 면적 238만km²(아프리카 1위, 세계 10위), GDP 약 1,750억 달러, 평균 연령 약 29세의 젊은 4,1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여 중동,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 잇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는 핵심 시장으로 높은 시장 확장성 보유

풍부한 천연자원, 빈약한 산업 기반

- 알제리 경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추진
 - 경제 전반적으로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
 - 석유가스 자원 분야가 알제리 전체 수출의 95% 이상, 전체 GDP의 약 30%, 전체 세수의 약 60% 차지
- 원유 매장량 세계 15위, 셰일가스 매장량 3위의 천연자원 부국
 - 원유 수출이 전체 국가 수출의 95%를 차지하며 경제성장 견인
 -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가 경제 운용실적이 유동적
-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2.4%에 불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세계 15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제품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

나. 교역

알제리 수입 동향

- 2018년 상반기 기준, 알제리 전체 수입은 약 228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
 - 중국은 2013년 이래 알제리의 1위 수입국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수입규모는 33.8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4.87% 차지

- 중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알제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EU 국가들이 순위를 차지
- 한국은 알제리의 10대 수입국으로 2018년 상반기 기준 6억 달러 규모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40.35% 감소

알제리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비중	증감*
총 계		47,089	46,059	22,782	100.00	- 0.80
1	중국	8,408	8,318	3,387	14.87	- 25.39
2	프랑스	4,773	4,298	2,266	9.94	16.08
3	이탈리아	4,645	3,755	1,878	8.24	14.63
4	스페인	3,568	3,132	1,780	7.81	21.21
5	독일	3,028	3,227	1,593	6.99	1.51
6	아르헨티나	1,335	1,518	1,183	5.19	52.47
7	터키	1,935	2,008	1,132	4.97	6.65
8	미국	2,294	1,817	901	3.96	- 1.92
9	인도	940	984	646	2.84	16.11
10	한국	1,092	1,690	609	2.67	- 40.35

*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9월 기준 확보가능 최신 자료)

-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기계·부품류가 전체 수입의 약 34%,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이 전체의 약 67% 차지
- 알제리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계·부품류 수입은 증가 전망

알제리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비중	증감*
총 계		47,089	46,059	22,782	100.00	-0.8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등	8,280	8,011	3,786	16.62	-3.52
87	차량과 그 부분품	3,487	3,440	2,146	9.42	33.57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4,543	3,980	1,832	8.04	-12.63
10	곡물	2,783	2,751	1,665	7.31	15.79
73	철강의 제품	3,198	2,920	1,119	4.91	-31.16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175	2,042	1,117	4.9	12.4
30	의약품	2,022	1,893	1,093	4.8	25.33
72	철강	2,247	2,413	1,092	4.79	29.76
04	낙농품	985	1,410	786	3.45	4.25
27	광물성 연료, 원유 등	1,563	1,938	627	2.75	-21.08

*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9월 기준 확보가능 최신 자료)

-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에 한시적으로 877개 품목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은 0.8%만 감소
 - 2019년 1월,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임시추가수입관세(DAPS : Droit Additionnel Provisoire de Sauvegarde)제도 도입, 111개 카테고리 총 1,095개 품목에 대해 30~200%까지 추가 관세 부과

알제리 수출 동향

- 2018년 상반기 기준, 알제리 수출은 약 19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6% 증가
 - 알제리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원유 수출량의 증가라기보다는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로 분석
-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로, 약 30억 달러 수출을 기록, 전체 알제리 수출에서 15.2%의 비중 차지
 - 그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등 EU 국가들이 상위 수출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는 알제리의 제14위 수출국으로 수출 주요 품목은 원유, 나프타 등 석유 관련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알제리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비중	증감*
	총 계	30,015	35,191	19,829	100.00	14.06
1	이탈리아	5,213	5,629	3,013	15.20	- 2.58
2	스페인	3,883	3,468	2,493	12.57	19.18
3	프랑스	3,426	4,431	2,241	11.30	10.69
4	미국	3,869	2,128	1,903	9.60	19.75
5	영국	1,062	956	1,355	6.83	83.80
6	터키	1,345	1,606	1,062	5.36	25.05
7	브라질	1,618	1,903	934	4.71	- 17.84
8	네덜란드	1,472	1,837	864	4.36	- 24.49
9	모로코	499	450	805	4.06	283.30
10	인도	480	872	689	3.48	58.06
14	한국	235	892	474	2.39	183.96

*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9월 기준 확보가능 최신 자료)

- 품목별로 보면 원유의 수출 비중이 2018년 상반기 기준 전체의 약 95%
 - 원유 이외 수출 제품은 비료, 무기화합물, 과자류 등으로 그 비중은 매우 적은 편이며, 원유 수출 비중이 국가 전체 경제지표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알제리 정부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한 수출 진흥책과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정치 사회적 불안으로 안정적인 정책 추진에 난항

알제리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비중	증감*
총 계		30,051	35,191	19,829	100.00	14.06
27	광물성 연료, 원유 등	28,608	33,823	18,806	94.84	12.51
31	비료	447	327	387	1.95	214.11
28	무기화학품 등	348	383	237	1.20	5.06
17	당류 및 설탕과자	234	228	128	0.64	5.54
08	식용 과일과 견과류 등	38	53	43	0.22	41.28
85	전기기기 및 부분품	29	18	30	0.15	296.43
25	소금, 황, 토석류 등	73	56	25	0.13	-7.08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등	22	42	23	0.11	1.69
63	섬유	0.05	0.2	21	0.11	261.79
70	유리와 유리 제품	17	31	20	0.1	58.88

*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9월 기준 확보가능 최신 자료)

다. 투자진출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 전반적으로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
 - 세계은행의 「2019 Doing Business」 보고서에 따르면 알제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전체 190개국 중 157위 기록, 전년 166위에서 소폭 상승
 - 전년 대비 전력공급, 대외교역 평가항목에서 뚜렷한 개선

알제리 비즈니스 환경 평가

평가항목	득점 (100점 만점)	전체 순위 (190개국 대상)
회사 설립	78.07	150
건설 허가 취득	63.28	129
전력 공급	69.58	106
부동산 취득	44.26	165
자금 조달	10.00	178
소액투자자 보호	35.00	168

납세	53.91	156
대외교역	38.43	173
계약의 효력	54.78	112
기업부실 해결	49.24	76
전체	49.65	157

자료 : 2019 Doing Business Report, 세계은행

- 가장 낙후된 항목은 금융서비스 산업 발달 척도를 측정하는 ‘자금조달(Getting Credit)’ 항목으로 190개국 중 178위 기록

* 신용정보 접근성 지수 및 개인/기업 신용도의 신용평가 기관 등록 비율 항목에서 0점 기록



인근 유럽 및 중동 지역 국가 투자 큰 비중, 중국 투자 증가세

지역별 투자 현황(2002~2016년)

(단위 : 백만 DA)

지역	투자건수	총액
유럽	472	1,148,208
유럽연합	332	666,499
아시아	114	169,732
미주	18	68,813
중동	262	1,057,257
아프리카	6	39,686
호주	1	2,974
복수 국가 공동투자	28	33,160
총합	901	2,519,831

주 : 1달러=120.15 DA(2019년 9월 환율)

자료 : 알제리 투자청(ANDI)(2019년 9월 기준 확보가능 최신 자료)

- 지리적으로 가까운 유럽 및 중동지역 투자가 알제리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을 차지
- 중국의 인프라 건설 분야 투자 확대 추세로 인한 아시아 지역 투자 증가
 - * 아프리카 최대 규모 이슬람 사원인 그랑드 모스케(Grande Mosquée), 알제 신공항 건설 등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주 증가에 따른 직접투자 증가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한국과의 교역

- 한-알제리 FTA는 체결된 바 없음
- 2019년 상반기 알제리 내 정치 사회적 갈등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며 경제 전반 침체가 지속되며 수출 감소
 -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약 4억 5,922만 달러 기록

대(對)알제리 수출입 동향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수출액	850,174	1,066,249	1,238,250	949,626	459,225
증가율	-40.0	25.4	16.1	-23.3	-8.6
수입액	864,932	199,970	712,838	1,965,025	795,640
증가율	-55.6	-76.0	256.5	175.7	-7.4
수지	-14,758	866,278	525,412	-1,015,399	-336,415

자료 : K-Stat

- 일부 품목(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수출품목 다변화 필요
 -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화물 자동차로, 전체 알제리 수출의 16.7% 차지
 - 수출 상위 5개 항목이 자동차, 중장비 등으로 차량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약 60.2%의 높은 비중 차지

한국의 품목별 대(對)알제리 수출품목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상반기	
			금액	증감	금액	증
		전 체	949,626	-23.3	459,225	-8.6
1	741200	화물자동차	186,348	183.9	124,969	105.6
2	741150	가솔린자동차(1,500cc이하)	173,052	40.1	78,310	-7.8
3	742000	자동차 부품	45,094	-33.8	25,266	32.6
4	725190	기타 건설중장비	58,803	2.1	24,942	-24.4
5	741170	디젤자동차(2,500cc이하)	24,237	-74.6	22,880	-5.5
6	790100	기타 기계류	10,804	-23.3	15,905	463.5
7	723200	금속성형가공기계	2,559	83.4	10,425	426.8
8	741160	가솔린자동차(1,500cc이상)	36,556	-0.2	10,208	-48.5
9	615290	기타 철구조물	13,395	-73.1	8,288	-3.5
10	713110	공기조절기	20,812	-22.8	7,617	-53.2

* MTI 6단위 분류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한국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 사례) A사, 의료기기 제조 설비 수출
 - 의료기기 및 설비를 공급하는 A사,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알제리를 타깃으로 하여 2018년 10월 중동아프리카 사절단 참가
 - 이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의료기기 산업이 알제리 정부의 현지 제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현지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설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 공략
 - 업체 요청에 따라 무역관이 섭외한 B사와 무역관에서 신규 발굴한 바이어 C사와 현장 상담 진행
 - 사절단 사업 종료 후에도 A사와 알제리 바이어 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무역관에서 후속 지원
 - 2019년 B사로부터 40만 달러 규모 오더 수주, C사로부터 20만 달러 규모 1차 오더 수주, 2차 오더 협상 중

나. 투자

2019년 상반기 기준 대(對)알제리 누적 투자규모는 약 2억 986만 달러

- 우리나라 전체 해외투자에서 대(對)알제리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4%에 불과

대(對)알제리 투자신고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신고건수	신규법인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125	48	355,518	119	213,573

주 : 2019년 9월 입수 가능 최신 통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의 대(對)알제리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2006년도 한-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포한 이후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여 진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유가 하락에 따른 알제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우리 기업 진출 감소세
- (성공 사례) 2016년 10월 현대자동차는 알제리 Tahkout 그룹과 협력하여 Tiaret에 승용차 조립 공장을 준공, 그해 11월부터 본격 가동
 - Tahkout 그룹이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 연간 생산 능력은 약 6만 대로 향후 10만 대로 확대할 예정
 - 현재 SKD 형태로 조립 키트를 수입, 현지에서 조립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알제리 정부 지침에 따라 점차적으로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 나갈 예정
 - 총 8개 모델이 현지에서 조립, 생산 중으로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 중
 -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 가동으로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의 대(對)알제리 승용차 수출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18년 말에는 전체 수출의 50% 차지
 - * SKD 형태의 부품 키트는 수출 통계상 완성 승용차로 집계

- 2019년 알제리 내 대선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의 여파로 현대자동차 현지 파트너사의 대표가 투옥되고 자동차 조립 Kit가 알제리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수입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Tahkout 그룹 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Administrator가 파견되며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어 그간 지연되었던 CKD 조립공장 설립 등의 추가 프로젝트 순항 전망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무역투자 관련 협력

- 양국 간 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례화
 - 양국 공동위원회 개최 시 연계하여 포럼 정례화
- 알제리 전자 무역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 전자 무역을 통한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알제리에 전자 무역 시스템 구축

에너지 분야 협력

- 양국 간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시스템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기준 및 라벨링 시스템 관련 협력 추진

ICT 분야 협력

- 한국의 ICT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 협력 추진
 - 알제리 관세행정 시스템 현대화 및 전자 조달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

- 알제리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 2006년 3월 한국의 건설교통부와 알제리의 공공사업부가 체결한 건설 분야 협력 MOU 및 2015년 2월 국토부와 알제리의 교통부가 체결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협력 MOU 시행을 위한 협력
 - 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철도, 스마트시티, 항공 분야 협력 강화
- 건설 분야 진출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협력
 - 알제리 기 진출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추진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제리 전력생산 주식회사(Société Algérienne de Production de l'Electricité, SPE)와 협의체 구성

Ⅲ. 진출전략

- 규제강화로 높아지는 진출장벽, 현지기업과 협력으로 극복
- 수요 창출을 위한 프로모션형 마케팅으로 수출품목 다변화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알제리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단기적으로 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 • 장기적으로 현지기업과 협력 추진	현지기업과 협력
ST 전략 (강점 활용)	• 품질을 강조하는 마케팅으로 시장 공략 • 프로모션형 마케팅으로 수요 창출, 수출품목 다변화 시도	마케팅을 통한 수요 창출
WO 전략 (기회 포착)	• 수요 창출형 마케팅 활동 전개로 수출품목 확대 -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모션 활동 강화	수요 창출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WT 전략 (위협 대응)	• 혁신제품으로 타국산 제품과 차별화 • 품목 다변화로 틈새시장 공략	품목 다변화로 틈새시장 공략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규제강화로 높아지는 시장진입 문턱, 현지기업과 협업으로 극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저유가로 인한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수입규제 강화
 - * 외환 통제 강화, 임시추가관세 도입, 자동차 전자제품 조립생산 Kit 수입규제 등
- 자국 생산 장려 및 제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생산설비 및 원부자재 수요 증가
 - * 한국기업과 협업 수요 증가 추세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알제리 정부, 각종 수입규제 강화와 동시에 국내 제조업 육성 전개
 - 수입대금 예치금 제도 시행, 수입업자 자격요건 강화, 수입금지 조치 한시적 운영, 임시수입관 세제도 도입, 자동차 SKD/CKD 부품 수입제한 등 수입규제조치 강화
 - 수입규제조치 강화와 동시에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소비재의 경우 점차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현지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추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단기적으로는 수출, 장기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 진출
 - 각종 제조설비,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에너지 관련 설비 및 장비 유망

2-2. 공공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알제리 프로젝트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세 변화에 따라 신정부 수립 후 민심 안정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추진 예상
 - * 중단, 연기되었던 공공 프로젝트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 전망
- PPP 관련 법 규정 마련에 따라 공공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참여 확대
 - *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 알제리 현지 기업과 협업 필수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9년 연내 대선 추진 시 2020년 신정부 수립 후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기대
 - 신정부 수립 후 민심 수습 및 안정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추진 확대 예상
 - 과도기 동안 정책결정자 부재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기존 프로젝트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 기대

-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공공 프로젝트 민간 개방정책 도입으로 환경, 인프라 분야 PPP 확대 전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공공 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알제리 기업과 협력 필수
 - 교통인프라, 수자원 관리 및 폐기물, 환경 분야 공공 프로젝트 유망

2-3. 선제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현지 소비재 수요 창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수입규제로 발 묶인 소비재 시장
 - * 대부분의 수입규제조치,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소비재를 타깃
- 낙후되어 있는 알제리 소비재 시장, 수요 창출 필요
 - * 인구 증가 및 소득수준 개선과 소비 양극화로 소비재 시장 다양화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시장규모에 비해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는 소비재 시장
 -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대비 소비재 시장 침체
 - 정보통신 발달로 소비자의 니즈는 다양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로 시장 미성숙
 - * 대부분의 소비재가 현지 생산기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제 대상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모션형 마케팅 활동 전개
 - 낙후된 소비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준에 맞는 제품을 수출하기보다 소비자들의 니즈를 일깨워줄 수 있는 혁신제품 소개 필요
 - 일부 고소득층 및 새로운 문물에 호기심이 많은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현지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 제품 및 가성비 높은 혁신제품 유망

3 한-알제리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무역투자 분야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양국 간 기업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진출 확대
 - * 공동위 개최와 연계한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례화를 통해 기업교류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4차 한-알제리 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 2019년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추진
 - 정부 간 경제 공동위원회 개최 시 민간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정례화하여 연계 추진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 추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비즈니스 포럼을 활용한 유력 진출 파트너 발굴
 - 알제리 공공기관 및 유력 공기업의 경우 개별 면담 주선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비즈니스 포럼 등 오픈 네트워킹을 선호
 - 오픈 네트워킹 세션을 활용,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여 현지 진출 추진

3-2. 에너지 분야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알제리 정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 중
 - *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알제리 정부,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 수립,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9% 절감,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 확대 추진
 -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에너지 효율화 관련 노하우 공유를 통한 협력 수요 창출
 - 정부의 정책목표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계획 및 관련 지침 부재

- 한국기업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협력 수요를 창출하여 진출 추진

3-3. ICT 분야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알제리 정부, 주변국 대비 낙후된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투자 활발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공공분야 중심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 선진화 추진
 - 알제리,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전체 193개국 중 130위 차지
 - * 모로코 110위, 튀니지 80위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국의 ICT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추진
 - 알제리 관세행정 시스템 현대화 및 전자 조달 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3-4. 건설 인프라 분야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정세 변화에 따라 신정부 수립 후 민심 안정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추진 예상
 - * 중단, 연기되었던 공공 프로젝트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 전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신정부 수립 후 건설 및 인프라 시장 활성화 기대
 - 신정부 수립 후 민심 수습 및 안정을 위한 공공 프로젝트 추진 확대 예상
 - 과도기 동안 정책결정자 부재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기존 프로젝트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발주 기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알제리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를 위한 협력 추진
 - 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 철도, 스마트시티, 항공 분야 협력 강화 추진에 따른 한국기업 참여 확대 전망

4

진출 시 유의사항

전신환(T/T) 거래 금지 조건	중앙은행의 대금결제 지연
■ (현황) - 전신환(T/T)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추심(D/P, D/A) 또는 신용장(L/C) 거래만 가능 ■ (대응전략) ☞ 모든 거래에 있어 첫 거래 시 신용조사 및 수출보험 가입 필수 ☞ 특히, 바이어가 선금금 등의 목적으로 T/T 거래를 실시할 시, 추후 현지 세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함 ☞ 계약상의 조건 이행 여부를 꼼꼼히 체크 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중앙은행의 외환송금 심사에 따라 수입대금 결제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 (대응전략) ☞ 바이어가 거래은행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했음에도 중앙은행에서 외환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바이어 통해 은행 Swift 사본이나 송금확정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노력 필요
신용장(L/C) 거래 유의사항(1)	신용장(L/C) 거래 유의사항(2)
■ (현황) - (2017.10) 수입대금 예치 의무화 도입, 신용장(L/C) 개설을 위해 거래금액의 120% 은행에 예치, 개설일로부터 1개월(30일) 후 화물선적 가능 - 상기 의무 불이행 시, 현지 세관에서 화물 압류할 수 있음 ■ (대응전략) ☞ 바이어의 역량에 따라 L/C 개설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바이어와 충분한 L/C 개설 예상일, 선적 예정일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현황) - L/C 총금액을 초과하여 선적할 경우 세관에서 화물 압류 가능 ■ (대응전략) ☞ L/C 거래의 경우 $\pm 1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금액, 화물의 수량 과부족이 허용되나, 알제리는 초과할 경우 통관이 중단되고, 세관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 ☞ 세관의 일정에 따라 세관검사가 시행되며, 행정 지연에 따른 컨테이너 반납 및 반출 지체료 등의 비용 발생함 ■ (사례) ☞ 국내기업 A사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L/C 개설 총액의 10% 초과하는 수량을 선적하였고, 통관 과정에서 세관검사를 받게 됨 ☞ 2개월 동안 세관검사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대금결제 지연, 컨테이너 반납 및 반출 지체료 3만 불 발생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HS Code	3901.20	수입관세율(%)	5
폴리에틸렌	수입액('18/US\$백만)	129	대한수입액('18/US\$백만)	1
	선정사유	활용범위가 넓어 수요가 큰 품목이나 수입 의존도 높음		
	시장동향	가스 수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증가에 따라 활용되는 파이프의 원자재인 폴리에틸렌 수요 증가		
	경쟁동향	ENPC Groupe 등 공기업 주도, 다수 사기업 존재		
	진출방안	사우디 제품 수입 비중이 제일 높은 시장으로 경쟁국 제품보다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		
품목명	HS Code	7210.70	수입관세율(%)	5
철강평판	수입액('18/US\$백만)	67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가전제품 현지 생산 증가에 따른 철강평판 수요 증가		
	시장동향	현지 생산이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		
	경쟁동향	Imetal, Tosyali, Lamino Attia, Maghreb Tubes 등이 현지 생산, 가전제품 제조업체 Condor, Brandt 등이 직접 철강평판 수입하여 완제품 생산		
	진출방안	품질대비 높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가전제품 제조업체에 직접 납품 노력 필요		
품목명	HS Code	3004.90	수입관세율(%)	5
약용 패치	수입액('18/US\$백만)	294	대한수입액('18/US\$백만)	1
	선정사유	약용 패치를 비롯한 간단한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시장동향	유럽산 고급 제품과 중국산 저가품 경쟁이 치열한 시장		
	경쟁동향	Hydrapharm, Biopharm, Pharmalliance 등 현지 제약 기업에서 생산 수입 및 유통		
	진출방안	수입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경우 등록에만 2-3년이 소요되는바 현지 협업 모색 필요		
품목명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15
차량용 소모부품	수입액('18/US\$백만)	27	대한수입액('18/US\$백만)	2
	선정사유	자동차 현지생산과 더불어 차량용 소모 부품 수요 증가 추세		
	시장동향	차량 수요 증가에 따른 소모성 부품 수요 확대 추세		
	경쟁동향	유럽산 고가 제품과 중국산 저가 제품이 양분되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며, 진품뿐 아니라 모조품 유통도 잦은 점에 유의		
	진출방안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완성차 제조업체가 승인한 부품만 수입 가능한 점 공략 필요		
품목명	HS Code	2917.32	수입관세율(%)	5
DOP	수입액('18/US\$백만)	7	대한수입액('18/US\$백만)	4
	선정사유	플라스틱 관련 알레리 기업들의 수요 급증		
	시장동향	현지 합작 생산 관련 수요 증가		
	경쟁동향	현지 Diprochim, ENPC 등 공기업 비중 높은 시장		
	진출방안	단기적으로 현지기업에 DOP 수출, 장기적으로 산유국 시장의 강점을 활용, 현지 합작 진출		

* 수입통계는 2018년도 상반기 기준(2019년 9월 말 확인가능 최신 통계자료)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관광·호텔학교	선정사유	호텔 신축 프로젝트 증가 추세이나 관련 인력을 위한 교육 콘텐츠 등은 부족
	시장동향	풍부한 관광자원 대비 열악한 인프라(시설, 인력, 노하우 부족)
	경쟁동향	ESHRA(알제리호텔학교) 최근 설립
	진출방안	현지 인력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제공
품목명 2		
홈딜리버리 서비스	선정사유	E-commerce 발달로 인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현지 물류 산업 낙후, 전자결제 시스템 낙후로 콘텐츠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서비스 부족
	경쟁동향	소규모 영세 배송업체들이 플랫폼과 계약, 배송
	진출방안	물류 인프라 구축, 쇼핑 플랫폼과 연계 진출
품목명 3		
이러닝 (E-Learning) 콘텐츠	선정사유	최근 사이버 러닝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다수의 공공기관, 기업에서 직원교육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중
	경쟁동향	Aygrade, Beeform 등 IT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콘텐츠 개발
	진출방안	현지어 콘텐츠 개발, 이동통신법 규정에 맞는 플랫폼 구축 필요
품목명 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선정사유	현지 모바일 시장 태동기로 애플리케이션 수요 급증
	시장동향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증가
	경쟁동향	Yassir(알제리의 Uber), Jumia(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앱) 등 선도기업들의 태동기
	진출방안	시장 초기 단계로 현지 파트너와 협업으로 시장 선점
품목명 5		
테마파크 등 관광 콘텐츠	선정사유	정보통신 발달, 소득수준 증가로 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미개발 관광자원이 풍부하나 관련 인프라 낙후
	경쟁동향	테마파크, 워터파크가 거의 전무한 상황
	진출방안	현지 문화를 고려한 콘텐츠 구성으로 테마파크 개발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프로젝트 시장공약을 위한 건설기계산업협회 무역사절단(잠정)

- 건설기계산업협회 무역사절단
 - 추진 시기 : 2020년 2월 초
 - 프로젝트 시장 선제적 시장 공약을 위한 건설기계산업 B2B 상담회 개최

소비재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 화장품 팝업 쇼케이스 운영

- '한국주간(La semaine Corée)'와 연계, 화장품 전시 쇼케이스 운영
 - 추진 시기 : 2020년 10월 초
 - 현지 공관과 협업, 한국 화장품 제품 팝업 샘플 쇼케이스 전시
 - 바이어 및 SNS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 전개, 한국 소비재 관련 수요 창출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1년 재정법 제정	2020.10월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SIPHAL(의약품 전시회)	2020.1월	SAFEX
SEER(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2020.2.10 ~ 13	SAFEX
Textyle Expo(국제섬유 전시회)	2020.2.25 ~ 27	CIC Alger
EquipAuto Algeria(자동차부품 전시회)	2020.3.2 ~ 5	SAFEX
BATIMATEC(건설분야 전시회)	2020.4월	SAFEX
SIMEM(의료설비 전시회)	2020.4.8~11	오랑 컨벤션센터
FIA(알제리 종합 박람회)	2020.6월	SAFEX
POLLUTEC Algeria(수자원 관리 전시회)	2020.6.8 ~ 11	오랑 컨벤션센터
OGEX(오일, 가스 박람회)	2020.10월	CIC Alger
Maghreb Pharma(의약품 전시회)	2020.10월	CIC Alger

I. 한-알제리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알제리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알제리의 잠재력

- 국토 면적 238만km²(아프리카 1위, 세계 10위), GDP 약 1,750억 달러, 평균 연령 약 29세의 젊은 4,1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
 -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적으로는 중동의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고,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인접
 -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중동, 아프리카, 유럽 3대륙을 잇는 교두보로서 역할을 하는 핵심 시장으로 높은 시장 확장성 보유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제 운용으로 석유 가스 수출이 전체 알제리 외화 수입의 95%, 정부 재정의 60% 차지
 - 확인된 원유 매장량 약 122억 배럴로 세계 15위 아프리카 3위 규모,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4.5조m³로 전 세계 10위, 아프리카 2위
 - 기술적으로 회수 가능한 셰일가스 매장 추정량은 707조 큐빅 피트로 중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전 세계 3위 규모
- * 석유·가스 이외에도 인산(22억 톤, 세계 3위), 헬륨(18억m³, 세계 3위), 우라늄(26,000톤, 아프리카 4위), 철광석(30억 톤, 아프리카 2위), 금(173.6톤, 세계 25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주요국 협력 현황

- 알제리 시장의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주요국들은 알제리와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알제리 또한 유럽에 편중되어 있었던 정치·경제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중
- 특히, 알제리는 국방예산 규모 105.7억 달러 규모로 세계 27위, 북아프리카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 강대국들의 주요 대(對)테러 협력파트너
- 지리적으로 인접한 EU와는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 안보·사회발전 부문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EU가 희망하는 알제리 내 이주민 수송과 2014년 유가 하락 이후 도입한 수입 제한, 관세 부과 조치 해제에 유보적인 태도 표명

- 2017년 3월 알제리와 EU는 공통 우선 목표(Priorité Communes de Partenariat)를 개정하며 안보 관련 전략대화 확대, 포괄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 유럽 단일 시장과의 교역증진을 목표로 채택
- 그러나 지중해 난민 관련 서로 다른 입장 차이와 알제리 경제 침체로 인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EU의 해제 요청에 대한 알제리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력 확대에 어려움
- 역사적으로 긴장과 화해의 연속이었던 프랑스와의 협력관계는 130년간의 식민지 통치와 프랑스의 잔혹 행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우호적이나 알제리 내 프랑스의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과거사 해결 관련 협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
- 경제 교류에 있어서도 대(對)프랑스 교역 비중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베르베르어 공식화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알제리의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는 알제리인의 비중도 증가 추세
- 외교관계 단절과 재개를 반복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 집권 이후 알제리의 외교정책 다변화에 힘입어 화해 분위기로 접어들었으며, 알제리는 미국의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대(對)테러 협력 파트너로 최근 경제교류도 활기를 띠기 시작
- 알제리 독립 이후 1960년대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을 다져온 러시아와는 최근 군사협력 이외에도 경제 교류로 협력 범위를 확대 추세
- 2019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 식품전을 계기로 농식품 분야 교류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준비를 위한 경제 포럼(Conseil d'Affaires) 신설
- 독립 이후부터 꾸준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중국과는 최근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지 표명
- 중국의 알제리 독립전쟁 지원 등을 계기로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 중이고, 2014년 2월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Partenariat Stratégique Global)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며 협력 프로그램 등 추진
 - * 2013년부터 중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알제리의 제1위 수입 대상국으로 등극
 - * 2017년 말 기준 알제리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약 1,000개사, 알제리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 약 2천 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관련 4만~4만5천 명 가량 근로자 체재
- 알제리는 2018년 9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참석을 계기로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MOU를 체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아프리카 대륙 관문으로서 역할 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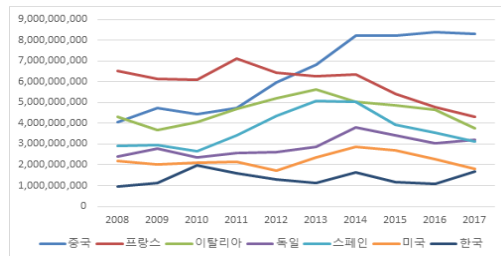
한-알제리 협력 현황

- 1990년 수교 이래 한-알제리 관계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중이고, 알제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Partenariat Stratégique) 관계인 국가

- 양국 협력 관계는 통상, 정부 간 기술협력, 건설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협약이 긴밀하게 진행 중
- 알제리 정부는 산업 다변화 및 미래지향적 경제 개발을 위해 한국을 모델로 삼기를 희망

한국-알제리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알제리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 '17년 기준 알제리 제1위 수입국은 중국으로 수입 규모 약 83억 달러, 비중은 18% 차지 ('13년 이래 중국 1위 수입국 지위 유지)
- 중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인근 유럽국가 수입 의존도 높음
- '17년 기준 한국은 알제리 8대 수입국으로 약 17억 달러 규모 3.7% 비중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19년 9월 확인 가능 최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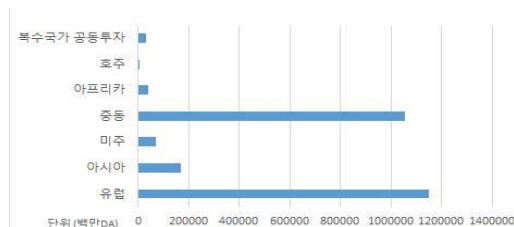
2. 대(對)알제리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7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기계	선박	차량	전자제품	철강
중국	기계	전자제품	철강	차량	고무
일본	기계	철강	차량	화학	광학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수출경합도) 대 알제리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4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3개 품목이 겹침
- (품목경합도) 기계, 철강, 차량 품목은 한중일 3개국 모두 수출 주력 제품으로 품목경합도 높음

3. 대(對)알제리 투자진출 현황(2002~2017년 누적)



자료 : 알제리 투자청

- 전체 알제리 투자에서 유럽과 중동의 비중이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82% 차지
- 한국의 대(對)알제리 누적 투자금액은 약 2억 986만 달러 (자료 : 수출입은행, '19년 9월)
- 진출기업 수 : 한국 25개사('18년 말 기준)

나. 한-알제리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알제리 정부 제조업 활성화 정책 추진

- 알제리 정부,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 전개
 - 이를 위해 투자처로서의 알제리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신사업 기회를 창출 노력

- 빈약한 제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 금융지원 강화
- 주요 성장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분야 등 선정, 집중 육성하여 내수 수요 충족은 물론 해외로 수출까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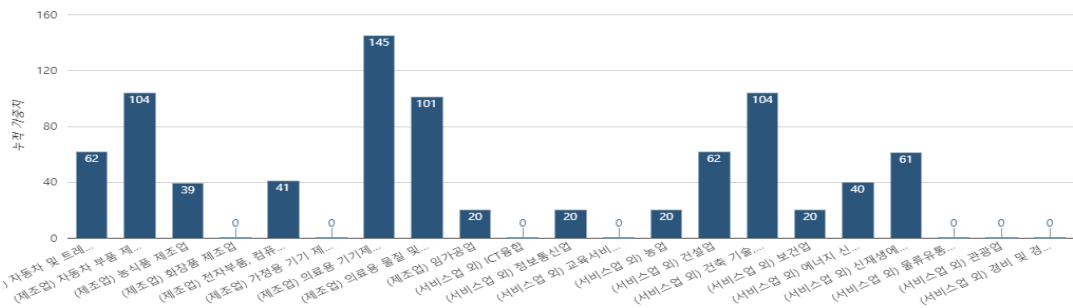
알제리의 협력 수요 산업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식품 및 가공	◆ 무역수지 적자 완화 - 수출산업육성, 투자유치 등 ◆ 국내 제조업 기반 육성 -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산업 등 ◆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발전, 교통, 환경 분야 프로젝트 추진
전기전자, 가전	기계장비 및 소재	
보건의료	에너지/인프라	

- 우리 기업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국내 산업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현지 기업 수요 다대
 - 90년대 초반 소련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그때까지 사회주의 노선을 걷던 알제리도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에 관심 갖기 시작
 - 그 당시 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로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을 알린 우리나라가 알제리의 경제개발 모델로 등장
 - 많은 알제리 기업들이 한국을 높은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과 협력수요는 높은 편

우리기업들의 대(對)알제리 협력 수요

- 알제리와 교역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향후 의료기기 제조,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의료용 물질 제조(이상 제조), 건설, 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이상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임



-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협력 최우선순위로 꼽았고, 그 밖에도 건설 및 인프라 구축 협력, 산업 및 과학기술 협력을 우선순위로 선택

- 알제리와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기업들은 직간접적 수입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법규 시스템 미비, 계약 절차의 불명확성 및 까다로운 인증제도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그 밖에도 의사소통 문제 및 정보부족을 언급
 - 기업들은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정보 지원 및 금융 지원을 희망하였으며 간접적 지원 형태로는 상담회 개최 등 비즈니스 기회 확대, 무역 협정 체결 등을 포함한 협정 고도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기업 진출 다변화 필요

- 우리기업 대(對)알제리 진출, 일부 분야, 품목에 집중
 - 우리기업의 대(對)알제리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출기업 25개사 중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가 13개사로 전체의 절반 차지
 - 대(對)알제리 수출 수입의 경우도 일부품목 의존도 높은 상황

대(對)알제리 수출 품목별 비중



- 차량 관련 품목이 전체 절반 이상 차지
- 그 외 주요 품목도 기계, 전자 제품

대(對)알제리 수입 품목별 비중



- 석유, 나프타 등 자원 관련 수입이 대부분
- 기타 품목 수입 미미

- 보다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진출 분야와 품목 다변화 필요
 - 물론 알제리 규제 환경 등 장애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장기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여 극복할 필요가 있음

 한-알제리 미래 비전 및 실현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구분	대외환경 + 기업(정책) 수요	유형	협력 산업
	▶ 북아프리카 신시장 개척	B2B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B2B	기계 장비 및 소재
	▶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추진	B2G	
	▶ 진출 교류 다변화	B2B	전기전자, 가전
	▶ 협력관계 다변화 모색	G2B	보건·의료
	▶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	B2B	
	▶ 산업협력과 투자유치 적극	B2B	식품 및 가공
	▶ 기술 및 인프라 부족	B2G	에너지·인프라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4대 아젠다	협력 방향
(G2G) 양국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 한-알제리 경제협력 기반 강화 ▶ 대외 협력 프로그램 활용 협력 강화
(B2B) 양국 기업 간 주요 산업협력 확대	▶ 제조업 분야 협력 : 자동차, 가전, 농식품, 제약 등 ▶ 소비재 분야 협력 : 화장품, 생활용품 등
(B2G) 에너지/인프라/환경 개발 협력 강화	▶ 사회 전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필요 ▶ 정부-민간 컨소시엄 및 다양한 자금지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협력 추진
(국민) 상호인력교류의 시너지 형성과 발전	▶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화교류 확대 ▶ CSR을 통한 상생하는 인력교류 추진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양국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① 한-알제리 경제협력 기반 강화

한-알제리 경제 공동위원회 개최 정례화를 통한 경제협력 기반 강화

- 우리나라와 알제리는 2003년 12월 부테플리카 前 대통령 방한 및 2006년 3월 노무현 前 대통령 알제리 방문 이후 공동위원회 개최, 경험 TFT 교환 개최 등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

한-알제리 경험 TFT 개최 현황

차수	개최시기	개최지	총괄부처
1	2006.5.	알제	(한)산업자원부 (알)민영화투자유치부
2	2006.11.	서울	(한)산업자원부 (알)민영화투자유치부
3	2007.6.	알제	(한)산업자원부 (알)민영화투자유치부
4	2007.11.	서울	(한)산업자원부 (알)산업투자유치부
5	2008.7.	서울	(한)지식경제부 (알)산업투자유치부
6	2009.5.	알제	(한)지식경제부 (알)산업투자유치부
7	2010.4.	서울	(한)지식경제부 (알)산업투자유치부
8	2011.5.	알제	(한)지식경제부 (알)산업투자유치부
9	2012.5.	서울	(한)지식경제부 (알)산업투자유치부

- 9차례 진행된 TF를 통해 양국 협력 관계는 통상, 정부 간 기술협력, 건설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협의가 진행
-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 기조로 알제리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며 양국 간의 교류가 주춤한 바 있으나 2020년 한-알제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정부 간 교류 및 협력 재개 기대

② 대외 협력 프로그램 활용 협력 강화

한-알제리 대외협력 현황

- 알제리는 지금까지 8건의 KSP를 비롯하여 KOICA를 중심으로 한 무상원조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

알제리 주요 협력사업

기간	구분	사업명	협력부처(국내기관)
2006~2007	KSP	알제리 소비자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신용카드 시장을 중심으로	재무부 (KDI국제정책대학원)
2008~2009	KSP	알제리 전자결제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카드 거래를 중심으로	재무부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09~2010	KSP	알제리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알제리 개발은행의 역량 제고 방안	재무부 (한국개발전략연구소)
2011~2012	KSP	알제리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전략기획부 (한국개발연구원)
2012~2013	KSP	알제리 국가 비전 2030 수립	총리실 전략기획국 (한국개발연구원)
2013~2014	KSP	알제리의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지원 -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총리실 전략기획국 (한국개발연구원)
2014~2019	양자 무상	알제리 어업 및 양식 생산력의 지속 가능한 증대 및 산업화 컨설팅	외교부, 농업농촌어업개발부 (KOICA)
2014~2015	KSP	2014 알제리 KSP	재무부 (한국개발연구원)
2015~2016	KSP	알제리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 조세정책의 효과와 세입 확충	재무부 (한국개발연구원)
2018~2020	양자 무상	알제리 새우양식 사료 제조역량 강화 사업	외교부, 농업농촌어업개발부 (KOICA)
2019	양자 무상	해외 농업기술 개발	외교부, 농업농촌어업개발부 (농촌진흥청)
2019~2022	양자 무상	알제리 사이버 보안 센터 설립 사업	외교부, 체신정보통신기술부 (KOICA)

자료 : www.ksp.go.kr, www.odakorea.go.kr

- 알제리 정부의 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개발 아젠다 별 KSP, ODA 및 개별 부처가 추진 중인 각종 해외 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 제공 추진

나. [B2B] 양국 기업 간 주요 산업 협력 확대

① 제조업 분야 기업 협력

알제리 제조업 시장 전망

- 알제리 정부, 원유 수출 의존도 높은 경제 구조 탈피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 전개
 - 이를 위해 투자처로서의 알제리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제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신사업 기회를 창출 추진
 - 빈약한 제조업 기반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 금융지원 강화

- 주요 성장산업으로 자동차, 가전, 제약, 농식품 분야 등 선정, 집중 육성하여 내수 수요 충족은 물론 해외로 수출까지 추진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책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국내 제조업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알제리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대 분야

- 제조업 육성정책 목표
 -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현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이룩
- 추진전략
 - 보유자원 및 국내 산업기반을 고려한 유망 산업군 선정
 - 산업군별 가치 사슬 구축
 - 지역별 산업 특화
 - 국가 정책 추진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 우대 분야
 - 2015년 재정법 규정을 통해 발전 우선 분야를 선정
 - 제철
 - 기계, 금속
 - 전기, 전자
 - 농식품
 - 제조
 - 화학, 플라스틱, 제약
 - 건설자재
 - 주요 산업별로 산업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핵심 산업 클러스터 조성(자동차, 기계), 세부업종별 컨소시엄 구성(농식품), 주요 업종 산업기술센터(농식품, 기계, 전자, 화학, 섬유·피혁, 포장, 건설자재) 설립 추진

제조업 분야 협력 전망

- 제조업 분야에 있어 한국은 현대, 기아(자동차), 삼성, 엘지(가전) 등 주요 산업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알제리 시장에 진출
 - 알제리 시장에서 한국 기술과 제품은 품질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알제리 기업의 협력 수요 증가 추세
- 단기적으로는 수출, 장기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 진출

- 알제리 정부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현지 생산 시설 설립 수요 확산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제조 설비 및 엔지니어링 관련 수출이 유망
- 장기적으로는 현지 제조 공정 관리 및 최종 생산물 품질 관리 차원에서 현지 파트너와 협업 추진 필요

② 소비재 분야 기업 간 협력

낙후된 알제리 소비재 시장 현황

- 알제리의 소비재 시장은 주변국 대비, 유사 수준 국민소득 보유 국가 대비 매우 낙후된 수준으로 이는 폐쇄성이 강한 알제리인들의 생활습성에서 기인
 - 알제리 국민이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40여 개국에 불과하고,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어려워 알제리를 벗어나 다양한 문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매우 제한적
 - * 알제리 당국의 강력한 외환 규제로 1인당 연간 외화 인출 한도 150유로에 불과 (출장 등 공식 업무 여행임을 증빙하는 경우 7,000유로까지 인출 가능)
 - 알제리 내 장기 체류, 거주하는 외국인 및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 외국인 숫자 또한 주변국이나 유사 수준 국민소득을 보유한 국가 대비 매우 적은 편으로 인적 교류를 통한 외부 문화 유입 또한 매우 제한적
 - 이런 환경에서 알제리인들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적은 편이며, 의식주 전반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소비하는 편
- 알제리 정부의 수입 제한 조치 또한 소비재 시장 발달에 장애요인
 - 저유가 기조 하에 무역적자 억제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방어하고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알제리 정부는 다양한 수입 제한 조치 시행
 - 이와 동시에 국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며 제조와 관련된 원자재, 기자재는 제외하고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소비재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 국내 제조기반은 빈약한 편으로 우수한 소비재 국내 생산이 불가하여 국내 소비재 시장에는 저품질 국산 제품위주로 공급

ICT 인프라 발달로 알제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

- 최근 ICT 인프라 발달로 인터넷, SNS를 통해 외국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며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폭증
 - 물리적 이동 없이 나라 밖 세상에 대해 간접 체험의 기회가 증가하며 알제리 소비자들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 증가

- 특히, 최근의 한류열풍이 알제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한류 붐이 형성되기 시작
 - 알제리 내 한류 팬클럽의 경우 규모는 주변국 대비 크지 않으나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고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팬클럽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마련하여 한류 팬들을 결집시킬 뿐 아니라 대사관의 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아직까지 한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국영 라디오 방송에서 외국곡을 다루며 K-pop도 비중 있게 소개되는 등 점차 확산 분위기

소비재 분야 협력 전망 및 전략

- 광범위한 소비재 분야 중 양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할 때 화장품, 문구류, 주방용품 등 유망 전망
 - 여타 중동 이슬람문화권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편이지만 복장 문화 및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대중적으로 수용되기에는 어려움 존재
 - 상대적으로 문화와 큰 관계없이 활용 가능한 화장품, 문구류, 주방용품 등 소비재 품목이 교류에는 유망
 - 특히 화장품의 경우 SNS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K-Beauty가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산되는 중
-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알제리 소비자들의 특성을 고려,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나가는 마케팅 활동 필요
 -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취향과 품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특징
 - 시장의 특성을 고려,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저가·저품질의 혼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선제적 마케팅 활동으로 시장에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SNS 등 손쉽게 확산시켜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마케팅 Tool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다. [B2G] 에너지·인프라·환경개발 협력 강화

사회 전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협력 필요

- 알제리 정부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에너지, 인프라, 환경개발 관련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젝트 발주
 - 도로, 철도, 지하철, 도시개발, 항만, 공항, 발전소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진행하였으나, 국제 유가 하락으로 재정난이 지속되며 프로젝트 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

- 예정대로 대선이 진행되며 2020년 신정부 수립 후 정치적 혼란 수습 및 민심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 환경 프로젝트가 재개되거나 신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협력 기회 확대 예상
- 정부-민간 합동 대응으로 협력 기회 구체화 추진
 - 알제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로, 지하철, 도시개발, 발전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 다수
 - 우리기업들이 프로젝트 초기부터 한국의 경험공유를 통해 한국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사전 진단,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분야의 적극 협력 필수

컨소시엄 및 다양한 자금지원을 활용한 프로젝트 협력

- 주알제리 대사관, KOTRA, KOICA, KEITI 등과 협력을 통해 현지 조사단 파견하여 주요 인사 네트워크 구축, 유망 프로젝트 정보 수집, 프로젝트 발주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기능
- 우리나라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 및 각종 사업 지원 자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라. [국민] 상호 인력교류의 시너지 형성과 발전

① 다양한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 확대

친(親) 한(韓) 커뮤니티를 통한 교류 확대

- 한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전파하는 한편, 한류 팬클럽 회원들을 통해 가족,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는 민간외교사절로 활용
 - 한국 소비재 Showcase 혹은 각종 마케팅 행사 진행 시, 한글학교 수강생, 한류 팬클럽 등을 초청하여 '사전공개행사' 등을 진행해 한국 관련 콘텐츠 생산 및 확대 유도
- 알-한 친선협회를 활용하여 양국 기업 간 교류 촉진
 - 2017년 12월 14일 창립된 알-한 친선협회는 민간 분야에서 알제리와 한국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알제리 기업인 및 알제리 진출 한국 기업의 모임
 - 고위 정부인사 순방, 공동위, 경험 TF 등 정부 차원의 교류 기회에 친선협회 활동과 연계하여 민간 교류도 추진

정부 주도 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 교류 촉진

- 주알제리 대사관에서는 한국영화 상영, 공연단 초청, 글짓기 대회, K-pop 경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알제리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
 - 매년 한국 주간에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운영으로 알제리 내에서 한국 문화 저변 확대 추진
 - * 올해 최초로 알제리에서 K-pop Festival 예선전을 개최하여 500명 이상의 K-pop 팬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음

2 CSR을 통한 상생하는 인력 교류 추진

알제리 진출기업들의 현지 CSR 활동

- 알제리에 진출한 한인기업들은 다양한 CSR 활동을 경주하며 현지 커뮤니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 중
 - 주 알제리 대사관에서는 매년 현지 언론을 초청하여 CSR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이 기업들의 현지 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향후 우리 진출 기업의 CSR 활동뿐 아니라 알제리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다양한 기업의 CSR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기업 인식 제고 필요
 - 단순 기부에 그치는 행사성 활동이 아닌, 알제리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 기여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진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 필요

Ⅲ. 향후 對알제리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한-알제리 경제협력 채널 구축 강화

- 한-알제리 공동위, 경제협력 TF 및 고위 정부인사의 순방 등의 기회를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논의의 기회로 활용

② 공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아젠다 이행력 확보

- 공관의 상무 기능과 KOTRA 무역관 간 핫라인을 구축, G2G-B2G-B2B 협력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계획 및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사관 주최 진출기업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협력 아젠다 논의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 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양국 정부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희경	관장	알제 무역관	+213-23-48-58-43	heekyung1212@kotra.or.kr
2	이경남	과장	본사 신남방팀	02-3460-7673	leekyungnam@kotra.or.kr

KOTRA자료 20-081

2020 국별 진출전략 알제리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 이 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27-9(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